

링컨·처칠·테레사·스티브 잡스...

위대한 지도자들로부터 리더십 배우다



역사를 바꾼 50인의 지도자

찰스 필립스 지음

모세,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브러햄 링컨, 윈스턴 처칠, 마더 테레사,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흔히 지도자의 전형을 꼽는다면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는 지도자의 귀감인 도덕성, 열정, 용기, 의무감,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다. 그와 같은 덕목은 에이브러햄 링컨, 마더 테레사, 스티브 잡스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우리 시대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앞서 열거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배우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자질을 갖춘 이들은 많지 않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나왔다. '신화와 인류' 시리즈의 작가로 유명한 찰스 필립스가 펴낸

『역사를 바꾼 50인의 지도자』는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상업 분야를 아우르는 50인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분석했다. 저자는 인물들이 지닌 리더십의 특징과 50인의 지도자가 지닌 유사성을 주목한다.

용맹과 단호함은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로마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맞서 싸운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과감히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던 이들이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2세는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켜낸 지도자들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애썼던 이들도 있다. 넬슨 만델라와 바렌 보잉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후자는 아랍과 이스라엘 음악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들이 음악을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도록 했다.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새뮤얼 골드윈, 컴퓨터 시대의 선구자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예견하는 안목이 있었다. 경쟁하고 설득하는 지도자로는 나폴레옹과 마더 테레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시그마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소련 붕괴 당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세컨드핸드 타임

알렉시예비치 지음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베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신작 '세컨드핸드 타임'이 출간됐다. '목소리 소설'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한 벨로루시 출신 알렉시예비치는 이번 작품에서 소련 붕괴 당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소설은 '어느 가담자의 수기'라는 저자의 스토리로 시작된다. "고르바초프와 소수의 지식인이 주도한 혁명이 일어났다. 나도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80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채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

책은 소비에트 시대를 살았던, 자유주의

를 받아들이는 작가와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원했던 그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다. 소련이 붕괴된 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반면 이데올로기적 관념들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었다. 공산주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물질에 휘둘리는 속물근성의 현실을 보며 예전의 강력한 차르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저자는 굴욕의 역사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탈린 시기의 참혹함을 증언한다.

당시의 군대, 강제 노동 수용소, 붉은 군대에서 싸운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비인간적 만행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혼란과 항구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봐야 한다"며 시대적 각성을 요구한다.

〈이야기가있는집·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류역사는 곡물에서 시작됐고 곡물에 달렸다

곡물의 역사

한스외르크 퀴스터 지음



곡물의 역사

한스외르크 퀴스터 지음

관련 책은 거의 없다. 특정 인류의 유래를 거론하는 역사서도 유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만 식물의 진화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다. 유적이 발굴될 당시 식물 잔여물이 발견되는 일은 가끔 있었다. 그러나 토양 성분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식물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곡물에 대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독일 라이프니츠 대학교 식물지화학연구소 한스외르크 퀴스터(식물생태학) 교수가 펴낸 '곡물의 역사'는 최초의 경작에서부터 현대의 슈퍼마켓까지를 다룬다.

"만약 재배식물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곡물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본다. 그는 쌀, 보리, 밀 등 곡물부터 감자, 밀기, 바나나 등 다양한 재배식물이 인류와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인류 최초 경작지에서 지금의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종합 무진 시공간을 아우른다.

저자는 가장 오래된 재배식물의 원산지를 서남아시아 저지대 건조지역으로 본다. 정착하는 이 지역을 방패 또는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밀과 보리, 콩과 같은 '기초 곡물'을 재배했으며 이들이 '최초의 농부'

맥방, 곡방 등 요리 관련 방송이 상종가다. 요즘처럼 음식과 관련된 방송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다. 그뿐인가. 음식과 먹거리를 결합한 책만도 수십 종이다.

그러나, 음식 콘텐츠는 넘쳐나는데 비해 재배식물에 관한 책은 거의 없다. 특정 인류의 유래를 거론하는 역사서도 유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만 식물의 진화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다. 유적이 발굴될 당시 식물 잔여물이 발견되는 일은 가끔 있었다. 그러나 토양 성분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식물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곡물에 대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독일 라이프니츠 대학교 식물지화학연구소 한스외르크 퀴스터(식물생태학) 교수가 펴낸 '곡물의 역사'는 최초의 경작에서부터 현대의 슈퍼마켓까지를 다룬다.

"만약 재배식물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곡물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본다. 그는 쌀, 보리, 밀 등 곡물부터 감자, 밀기, 바나나 등 다양한 재배식물이 인류와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인류 최초 경작지에서 지금의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종합 무진 시공간을 아우른다.

저자는 가장 오래된 재배식물의 원산지를 서남아시아 저지대 건조지역으로 본다. 정착하는 이 지역을 방패 또는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 밀과 보리, 콩과 같은 '기초 곡물'을 재배했으며 이들이 '최초의 농부'



의 가정 정원, 귀족의 저택 등지에서 재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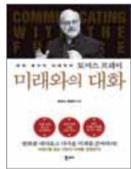
신대륙에서 구대륙(유럽)으로 재배식물이 퍼져나간 것은 15세기 말이었다. 이 시기에 식물의 품목과 음식의 종류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토마토는 가장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유럽에선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라고까지 불렀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다양한 식품이 놓여 있다. 밀가루, 과일, 채소 등 품목도 다양하다. 1년 내내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산지의 중요성도 거의 사라졌다. 재배식물도 글로벌화되었고 농업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 공급의 안정성,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대단히 다양한 식품 등 매우 많은 일이 경작, 농경문화가 아니었으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곡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곡물에 모든 것이 달렸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다." 〈서해문집·1만49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5년 안에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미래와의 대화

토모스 프레이 지음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융통성이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세계 경제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즈니스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진화 앞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로 꼽히는 토모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펴낸 '미래와의 대화'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지난해 한 강연에서 "앞으로 15년 안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5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1인 기업 등 기존 근로 시스템과 다른 형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자가 혁신적인 변화 앞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비전을 수립하라" "비전을 해방시켜라" "결과를 검토하라" "비전을 해방시켜라" 등이다. 그는 기존의 노동산업은 급속도로 축소되지만 일거리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계 경제고전서 우리 경제철학 찾자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박일호 지음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돋보이는 경제경영서 40권을 묶은 서평집 '경제는 살아있는 인문학이다'가 나왔다.

서평가이자 북칼럼니스트인 저자 박일호는 어렵고 단단해 보이는 두터운 경제경영서의 족수를 가볍게 자르고 유머러스하게 버무리며 경제경영 서평의 유

쾌한 처방전을 내놓는다. 책이 다루는 경제경영서의 범주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다.

미래의 일과 노동, 트렌드에서 최첨단 경제경영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땅에서의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저자는 세계의 경제고전 속에서 우리의 경제철학을 찾고, 중국을 비롯한 최신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의 비전을 찾고자 한다.

〈현자의 마을·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장단목 쪼갬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 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

대산프리모가발